

기관 돋보기 |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올해 10주년...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복지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은 2013년 설립되어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이했다. '함께 성장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미션에 따라 가족에 불합행사, 원예프로그램 '원더풀', K-BIO 꿈다리 멘토링사업 등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의 특화사업으로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주민 사회통합사업을 통해 인식개선 캠페인, 사회공헌활동, 생활안전지원 등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버태권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꾸준히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종합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이들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평가 항목에서 모두 A 이상의 등급을 받는 등 충북내 최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복지관을 이끌며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유응모 관장을 만나 봤다.

(편집자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전경.

60여개 분야 교육프로그램 · 봄 가족 행사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사할린 한인 지원 · 청소년 멘토링 등 주민 수요 따라 '맞춤형 복지'

오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응모)이 위치한 오송은 신도심이자 신규세대의 복지수요가 큰 지역으로 오송읍, 강내면, 옥산면, 강서1동 총 4개의 행정구역역을 관할하고 있다.

현재 흥덕구청 신청사 신축과 세종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인접지역으로 풍부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관련 산학협력단과 연구소가 위치하여 자원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복지관은 2013년 9월 24일 개관하여 올해 10주년을 맞이해 인프라를 갖춘 신도시로 지역주민의 취미·여가욕구 충족을 위해 최대 60여개의 강좌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관 당시 청주시 내 장애인복지관이 유일하게 한곳이라 이용 대기가 많았기 때문에 관할 지역 내 지적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파란도화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

'파란도화지' 프로그램은 장애인인지,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목공 · 장구교실, 발표회 등 생동감 있고 감각적인 활동으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또,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 지역주민들이 가족 및 친구 단위로 자유롭게 자원활동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복지관은 2013년 9월 24일 개관하여 올해 10주년을 맞이해 인프라를 갖춘 신도시로 지역주민의 취미·여가욕구 충족을 위해 최대 60여개의 강좌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행사는 약 25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와 키즈 놀이터, 원데이 클래스 등을 운영하며 약 1,5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 외에도 청주시농업기술센터·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원예교실, 노인·장

로 생활안전 지원체계 구축과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 사할린 한인 및 지원단 간담회, 정보제공을 위한 월간 정보지 '월척' 제작, 의료·돌봄·장래 지원 등 일상생활 서비스 및 문화·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있으며,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여 사회 인식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사할린 한인이란 과거 일본령 사할린 섬 남부에 일제로 인해 노무자로 징발당해 끌려간 한국인과 그 후손을 말하며, 현재 오송휴먼시아아파트에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주민 50여명이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체적 발달과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1대 1 상담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 태권도 진흥재단과 협업하여 6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실버태권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유응모 관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고 있다"며 "사회변화에 따른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목적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관의 발전을 위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일 평균 2000여명의 이용자가 복지관을 방문하고 있지만 현재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오송은 현재 오송 2단지가 조성 중에 있어 약 4만명의 인구 유입이 있을 예정이다. 이를 대비해 복지관은 홍보에 주력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며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힘쓸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6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버태권도' 프로그램.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주민들이 15주년을 맞아 나눔이를 떠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 난임 지원 확대 등 저출생 대책 추진

시술비 지원 소득제한 폐지... 난자 냉동시술 최대 200만원 지급  
 전국 최초 시술여성 가사서비스 · 난임·우울증치료센터 설치 추진

충북도는 난임시술 소득제한 폐지,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난임시술 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등 난임 지원을 확대하는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2,520건(1,268명)의 난임시술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 809명(32.1%)이 임신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충북 전체 출생아 수 7,456명의 10.9%이며, 해마다 난임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는 증가하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지금까지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내년부터 소득기준 제한 폐지로 인해 도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난임시술 지원 사업비는 올해보다 1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난임에 대한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난소기능검사, 정자검사, 난관조영술 등 난임부부의 진단검사비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난임시술 후 회복 시까지 시술자의 휴식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난임시술 후 가사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 이용 금액에 대하여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난임 지원과 우울증 등을 상담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국립의료원의 중앙센터를 포함 전국에 총 8개의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충청권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충북도는 내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충청권 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8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향후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시술비 200만원을 지원하며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043-270-5936)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난임 지원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내달부터 청년·중장년층 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가사·영양관리·심리지원 등 제공

충북도는 오는 9월부터 청주지역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나 가족 돌봄 청년에게 돌봄·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올해 시범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서 8월 10일 청주시가 최종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최초로 청주시 사업을 수행한다.

청주시 공모사업 예산은 2.1억원(국비70% 1.47, 도비15% 0.31, 시비15% 0.32)이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질병·부상·고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40세~64세의 중장년과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을 돌보는 만13세~34세의 청년이다.

월 12~72시간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함께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중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특화서비스를 통해 제

공받게 된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돌봄 대상자를 늘리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업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이재승 보건복지국장은 "올해 청주시에 시범사업으로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도내 타 시군에서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선정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 (043) 255-0504, 253-0504 FAX: (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daum.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출력·도면복사

무인 프린트샵 프린트카페

청주대정문점

가입문의 1522-5044

24시  
 무인복사기

복사  
 출력  
 스캔  
 팩스

# 청주시, 돌봄 필요 노인 1,170명 찾아내

## 돌봄대상 어르신에 대해 지속적 관리

청주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 욕구에 맞춘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한 노인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일제조사 결과 1,170명을 찾아내 1,338건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일제조사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공격돌봄서비스 이용자를 제외한 3만4000명 중 돌

봄 수요가 예상되는 노인 단독가구, 노인 부부가구 2만8454명에 대해 이·통장이 가정을 방문해 1차로 돌봄 필요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2,184명의 돌봄 필요 어르신을 찾아냈다.

2차 조사는 간호직공무원과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이 전화, 방문, 안내창구를 통해 대상자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돌봄서비스 욕

구 등 1:1로 심층 상담을 진행했고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1,170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했다.

1,170명에 대한 복지상담 결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71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421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54건, 민간자원 472건 등 중복지원을 포함 1,318건을 연계했으며, 건강, 주거, 경제 등 복합적 돌봄 욕구가 있는 20명은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사후관리를 진행 중이다.

구장별 지원 대상자 수는 상당구 373명, 흥덕구 355명, 서원구

229명, 청원구 213명 순으로 상당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집안청소, 식사지원, 밀반찬 지원 순으로 파악돼 민간자원 등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파악된 돌봄대상 어르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돌봄 창구를 통해 돌봄 대상 어르신을 적극 발굴해 노인통합돌봄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내년 3월 착공, 12월 준공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에 건립 예정인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에 주식회사 큐브랩건축사사무소가 최종 선정됐다.

시는 장애인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가상체험과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설계를 공모한 결과 10개 작품 중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장애인 특성과 주변 지형을 활용해 설계한 부분이 우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에 조성 예정인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조감도.

수하다고 평가를 받았다.

당선자에게는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권이 부여되며 기타 입상작 4개에는 1,700

만원 상당 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는 사업비 55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900㎡ 규모로 조성된다. 디지털 발달 콘텐츠존, 대근육 훈련 트레이닝존, 직업훈련존, 가상 스포츠 체험존 등으로 구성된다.

이 건물이 준공되면 발달장애 아동을 비롯한 이용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이 VR·AR 기반의 다양한 실감체험, 인지 감각 재활, 스포츠·직업훈련, 정보 교육 등 디지털 재활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단양군, '생활인구 시범산정 지역' 충북 유일 선정

## 생활인구의 활용 분야 확대에 기대감 상승

단양군이 전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 지역'에 충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생활인구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유형화 도출로 행정수요를 더 정확하게 예

측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군은 맞춤형 생활인구 증가 지원정책 발굴과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의 축제 참여 인원과 특성도 파악해 축제 콘텐츠 개발 등으로 맞춤형 축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 맞춤형 관광정책 지원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비 추가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기존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개념이다.

생활인구 산정 방법은 통계청이 주민, 외국인과 이동통신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해 산정한 다. 결합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 처리돼 분석될 예정이다.

으로 2만7000여명의 정주 인구 대비 연간 1,0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도시의 메카라는 강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2021년 지역관광 발전지수 1등급, '한국관광 100선' 6회 선정 등 단양 관광의 우수성을 강조해 충남 보령시와 함께 '관광' 분야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생활인구 산정 방법은 통계청이 주민, 외국인과 이동통신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해 산정한 다. 결합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 처리돼 분석될 예정이다.

# 충주시, 장애인 가족에 '마음돌봄' 제공

충주시가 도내 최초로 보건소 재활센터 이용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마음상태 치유 심리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 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이들의 마음건강 질환 예방과 건강한 심리재활을 돕기 위해 1차 심리검사, 심리 상담·치료 등을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

다. 1차 심리검사에서 참여자들의 마음건강 상태를 알아보고, 결과에 따라 고위험 대상자는 정신전문요기관 치료를 연계할 방침이다.

또 전문가사를 통한 마음건강 교육과 원예·음악·숲속·요리 체험 등 다양한 힐링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시는 장애인의 우울감, 불안장애, 수면장애가 비장애인보다 각

각 3.1배, 2.5배, 1.6배 높다는 국립재활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 제천시, '인구감소 위기 공동대응' 위해 맞손

## 제천단양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는 지난 2일 제천단양상공회의소와 인구감소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천시는 지난 2일 제천시청에서 제천단양상공회의소(회장 한정철)와 인구감소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8일 세 명대·대원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이은 두번째 협약으로, 지역 상공인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제천단양상공회의소와 지역 인구감소 위기의 심각성을 공동 인식하고,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기업별 특성에 맞는 지역 인구 늘리기 사업 발굴 추진, 기업체 임직원 주니어 전 직극동참, 출산·육아부담 경감, 직장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 지역 상공인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제천단양상공회의소와 지역 인구감소 위기의 심각성을 공동 인식하고,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김창규 시장은 "지역 인구 문

제 해결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형식적인 협약에 그치지 않고 제천시 인구에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철 회장은 "근로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이주정착금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기업도 지역사회의 일원이므로 오늘 협약을 계기로 관내 대표 경제단체로서 시의 인구 유입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한 기여방안을 찾아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제천시에서는 관내 기업체 채용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등 기업지원 사업과 더불어, 3패(快)한 주택·출산자금 지원사업, 다자녀가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제천시만의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급

## 직종 구분 없이 종사자 전원 지원... 도내 유일

음성군이 이달부터 관내 장기요양기관 62개소 1,200여명의 종사자에게 매월 3만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수당 지급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강조해 충남 보령시와 함께 '관광' 분야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생활인구 산정 방법은 통계청이 주민, 외국인과 이동통신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해 산정한 다. 결합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 처리돼 분석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가 예산확보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로하는 요양보호사 등 일부 종사자에겐 수당을 지급하는 도내 타 지자체와는 달리, 음성군은 직종의 구분 없이 기관 내 종사자 전원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

다. 조병욱 군수는 "방역 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온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간 지금도 장기요양 기관은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돼 코로나19와 함께 싸우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어르신들을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사를 드리며, 수당 지원을 통해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진천군, 어린이집 대상 친환경 에코그린 지원 사업 추진

## 1,000만원씩 지원, 친환경 인증 도배·장판 등 개선

진천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내 어린이집 10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에코그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으로 장시간 실내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를 위해 친환경 보육환경을 제공해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쾌적

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군은 진천군 어린이집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관내 어린이집의 추천을 받아 관내 어린이집 10개소에 각 1,0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자체는 모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도배, 장판(마루), 페인팅 등 실내 환경 개선에 사용한

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2023년 상반기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방난방비 운영비 등에 7,500만원을 지원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 "마음은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리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수건류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기저귀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음료류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여성 위생용품류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별류	기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1688-1377**

전국 어디서나  
지역 소량 기부

# 괴산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인상

### 매월 32만원 균등 지급에서 연령별 차등 지급

괴산군은 8월부터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18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아동은 부모의 이혼, 사망 등 가족 해체로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를 받는

아동이다. 괴산군에는 현재 9세대, 11명의 아동이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위탁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 부 보전하기 위해 매달 가정위

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양육보조금은 연령에 상관없이 매월 32만원씩 지급됐는데, 8월부터는 연령별로 차등 지급된다.

만 7세 미만은 30만원 지급,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은 40만원 지급으로 8만원 증액되

고, 만 13세 이상은 50만원 지급으로 18만원 증액된다.

이번 증액 결정으로 괴산군은 충북도 내 최고 수준으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영훈 가족행복과장은 “앞으로도 위탁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괴산군, '2023년 충북형 어르신 돌봄 특화사업' 선정

###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및 확대

괴산군은 돌봄 필요 노인이 희망하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주최한 '충북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충북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 공모 선정에 앞서 서류 심사

결과에 우수성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괴산군은 올해 총 사업비 7억원(도비 2억1000만원, 군비 4억9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감동과 함께'하는 괴산형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합 돌봄 창구가 마련되며, 지역

어희회를 통해 대상을 선정해 안전 주거 집수리사업, 퇴원 안정돌봄서비스, 병원 진료 이동서비스 등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며, 향후 괴산지역에 꼭 필요한 재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읍·면별 통합돌봄 매니저를 운영해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통합사례관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가노

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간 통

합돌봄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송인현 괴산군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대환경,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돌봄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등 촘촘한 지역 돌봄서비스 제공을 더욱 공고히 해 복지 만족도를 높여

# 증평군, 행복 온(ON)돌봄 상반기 '순항'

### 7개월 동안 출생아수 137명 늘어

증평군은 지난 16일 민선 6기 제1호 '함께하는 행복돌봄'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행복 온(ON)돌봄 추진 계획을 시작으로 '증평군 아동 돌봄 지원조례' 제정, 돌봄협의체 구성 등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아동·보호자·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토론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돌봄기관의 확충과 기존 돌봄서비스 연계 등 환경 최적화에도 힘써왔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행복돌봄 나눔터 7개소, 장의파크 내 실내놀이터 등 총 9개의 돌봄 공간이 올 하반기 조성 완료로 목표로 순탄하게 추진 중이다.

또한 군 돌봄정책팀이 돌

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존 돌봄서비스간의 유기적 연계 추진으로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6건의 연계 실적을 올려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건의 연계실적은 2023년 지역먹거리 계획 실천모델 확

산사업과 돌봄기관, 행복 두끼 사업과 증평군 드림스타트, 조부모보육아카데미사업과 아이돌봄서비스, 행복 온(ON) 돌봄 플랫폼 사업과 증평군 홈페이지, 작은도서관운영과 돌봄서비스, 아이돌봄사업과 증평군

드림스타트 연계가 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돌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돌봄해택이 필요한 아이와 보호자 그리고 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낳아 기르기 걱정 없는 증평 건설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복 온(ON) 돌봄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른 영향으로 증평군의 출생아수는 올해 7개월 동안 137명이 늘어 지난해 동기 대비 48.9% 증가하며 도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 보은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 2대 배치



보은군은 보은군장애인단체연합회와 지난 16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보은군과 군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권현중)는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계약을 했다.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다.

이번 협약으로 군은 올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2대를 군 장애인 단체연합

회에 위탁·운영한다.

이용 대상은 중증 보행장애인,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 출산 예정 임신부, 교통약자를 동반한 보호자 등이다.

이용요금은 5km 기본요금 1,000원 외 1km마다 200원을 추가로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인 월 2회 통행료를 면제한다.

운영은 다음 달부터 할 예정이다.

권현중 회장은 “철저한 준비로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옥천군은 지난 17일 청성면 지역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한 '청성어린이행복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개소식 진행

### 행정복지센터 생활관 증축... 스터디카페 등 구축

옥천군은 지난 17일 청성면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옥천군수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성면 지역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한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2021년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통해 유휴공간인 청성면 행정복지센터 생활관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아동 및 청소년 지역주민의 참여로 청성작은도서관과 청성 어린이행복센터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했다.

지난 7월 4일 수탁기관 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청성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혜란)이 수탁자로 선정돼 2023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됐다.

군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생

청소년 스터디카페로 구성하여 학습 및 동아리 모임, 학부모 상담 등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군은 어린이행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소 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약 1년여간 지역주민의 참여로 청성작은도서관과 청성 어린이행복센터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했다.

지난 7월 4일 수탁기관 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청성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혜란)이 수탁자로 선정돼 2023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됐다.

군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생

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용 대상은 청성면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로 확대하였으며, 소득기준에 제한없이 가능한 많은 아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 여건 개선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방학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소 아동들을 위해 무료로 급·간식을 제공하고, 기초 학습 지도 및 예체능 체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개소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이를 키우고 보살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행복한 옥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옥천군, 복지사각 위기아동 발굴 '더 촘촘히'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활용, 아동 학대 조기 발견·보호

옥천군은 오는 9월 22일까지 2023년 3차 복지사각지대 위기 아동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위기 아동 발굴은 행복e음(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간 4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해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미실시 등 사회

보장 빅데이터 44종을 활용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에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선별된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복지 욕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을 통해 아동보호를 할 계획이다. 김세진 주민복지과장은 “선제적

발굴을 통해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보호하고,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2차까지 85명 아동의 가구를 모두 방문했고,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17명의 아동에 대해 복지서비스(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등)를 연계·지원했다.

# 영동군, 자매도시 청소년 상생교류 문화체험 진행

### 용산구 청소년, 영동군에서 특별한 체험 가져

영동군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서울 용산구 청소년 25명과 인솔자 5명 등 30명을 초청해 '자매도시 청소년 상생교류 문화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교류는 지역 구분 없는 청소년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며 청

소년의 리더십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영동군의 주요시설인 영동 와인코리야, 영동 와인터널, 과일나라 테마공원, 국악체험촌 등을 방문해 와인 족욕, 와인 제조 체험, 레인보우 식물원 관람, 국악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 통해 영동군

의 지역 문화를 직접 느끼고 경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용산구 청소년의 방문으로 자매도시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청소년들의 사회적 성장을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동군과 용산구는 지난 2003년 8월 지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문화, 교육,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구해왔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 살던 집서 요양토록... 재가 급여 확대 추진

## ●복지부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

### 2027년까지 월한도액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가족상담 서비스 전국 추진...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 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 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단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

춤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경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공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정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족센터 지원으로 편리하게

## 여가부 '전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요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취약·위기 가족 지원, 임신출산 상담, 긴급돌봄 등 필요한 가족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명, 연락처 등 신청자의

정보를 가족센터에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지역 주민과 가장 근접한 행정서비스인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급여 체계와 가족센터 서비스가 연계되면서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준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취약·위기 가족을 신속하게 찾아 정부의 지원방안을 알리고, 가족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가족센터가 시군구 기초단위에 서도 하나의 든든한 가족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체계를 혁신하여 더욱 다양하고 촘촘한 가족서비스를 충실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코로나 유행에 자원봉사자 절반 이하로

## 지난해 봉사자, 2019년 대비 42.4%... 20대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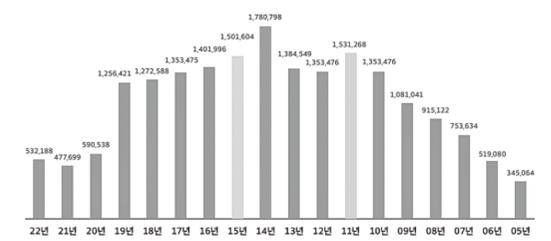
지난해 전국 사회복지시설에서 53만여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보다 5만여명이 늘었지만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견주면 절반에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의 '2022년도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전국 사회복지시설 1만5577곳에서 1만 53만2188명이 자원봉사를 했다.

2021년(47만7699명)보다 11.4% 늘어난 숫자다.

하지만 지난해 자원봉사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125만6421명)에 견주 42.4%에 그쳤다.

감염병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59만538명)부터 크게 줄어든 자원봉사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연보에



연도별 자원봉사자 현황. 출처: 2022년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서 "감염병 여파로 2019년 이후 활동 봉사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며 "지난해 분기별로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의 영향으로 1분기에서 4분기로 갈수록 총 봉사활동 시간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자원봉사자는 노인

시설(20.6%)·복지관(15.8%)·장애인시설(15.1%) 등에서 많이 활동했다.

연령별로는 20대(39.0%)·60대(31.7%)·50대(13.5%)·40대(6.5%) 순으로 봉사자가 많았다. 또 여성(66.9%) 비중이 남성(33.1%)의 2배 이상이었다.

# 내년 중위소득 기준 인상 6.09% 역대 최대

보건복지부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40만964원

에서 6.09% 증가된 572만9913원이며, 1인 가구는 올해 207만7892원에서 7.25% 증가된 222만8445원으로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선진기준이 최저보장수준이며 이 또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289원에서 2024년 183만3572원으로 13.16% 인상했다.

1인 가구는 올해 62만3368원에서 14.40% 인상된 71만3102원이다.

# "청소년·저소득층 HPV 무료접종 받으세요"

(인유두종바이러스)

## 12~17세 여성 청소년·18~26세 저소득층 여성 대상

질병관리청은 여성 청소년에게 예방접종 대상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한 무료 백신을 접종하라고 당부했다.

이 백신은 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등 주요질환을 90% 이상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6개국과 전세계 122개국에서 접종하는 안전한 백신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12~17세

(2005~2011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1996~2004년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성이다.

올해 마지막 지원 대상인 2005년생과 1996년생은 오는 12월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HPV 예방접종은 1차 접종을 15세 전에 받을 경우 총 2회만 받으면 되지만, 15세가 된 이후에 할 경우엔 3회 접종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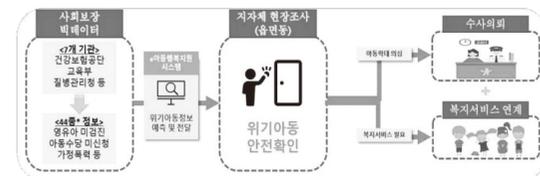
질병청은 접종 대상자가 여름 방학을 이용해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초 개별적으로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방문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예방접종관리→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아직 접종하지 못한 경우엔 예진의사와 상의해 일정에 맞춰 접종하라고 권고했다.

지명미 질병청장은 "충분한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감염 전에 접종해야 하며, 필요한 횟수만큼 접종을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아동행복지원사업 운영 절차.

#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 아동·보호자 정보, 'e행복지원시스템'과 연계해 관리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

행법을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

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출생미신고 위기가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서비스 1:1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의 혜택을 더욱 넓히고자 추진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1일부터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

키지'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이 사업은 일자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에 이르는 종합서비스를 1:1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그동안 운영했던 기존 24개(구직자) 운영센터와 35개(기업) 고용센터에서 전국 48

개 센터로 확대한다.

구직자는 각종 역량·심리 진단 프로그램, 면접·이력서 컨설팅,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등을, 기업은 근로·산업안전 컨설팅, 인지도도를 높이기 위한 채용 브랜딩, 집중 채용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 또는 방문하면 된다.

# 다둥이 임신, 태아당 100만원 지원 확대

##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정책 대안을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해당 대책은 늦은 결혼으로 인한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

기술로 인해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해, 임신·출산 전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태아 당 100만원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출산 시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상세내용 6면 참고

#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 위촉기준

vms 가입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 충북협의회-충북광역자활센터 '맞손'

### 저소득층 자립역량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률상담 사업 연계와 종합서비스 제공 등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이하 협의회)는 지난 달 28일 충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박재국)와 함께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 근무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에게 법률상담 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내일저축 가입자들의 근로 관계, 채권·채무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지원, 충북지역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 산형성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 축계좌 홍보, 협약 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를 할 계획이다.

김영석 회장은 "우리 협의회에 서 진행되는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을 통해 충북지역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상담터는 법무부 소 속 변호사가 협의회에 상주하여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사

###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충북광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1차 무료 법률 서비스(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연계 등)를 제공하는 '맞

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로 2013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 단양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 현안 지원사업' 선정

### VR 구축해 장애인 신체·심리건강 지원

단양장애인복지관(관장 김경섭)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에서 진행한 '2023년 지역복지 현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관은 농촌지역 장애인 건강증진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야외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실내에서도 다양한 체육활동과 체험을 할 수 있는 VR장비를 구축해 장애인들의 신체와 심리 건강을 위한 재활치료, 교육 목적으로 활용한다.

멀티미디어 학습 장치인 VR을

활용해 뇌 병변 장애, 경도 인지 장애, 발달장애 대상으로 가상현실 체험과 인지훈련 게임을 통한 인지와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대1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VR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한 가상에서의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자의 건강증진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약자와 산림치유가

필요한 참여자에게 주1회 가상의 숲 체험도 운영할 계획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VR스포츠 대회도 진행한다.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VR 장비는 체험뿐만 아니라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도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총사업비 2,420만원을 지원받아 참여자 모집 후 오는 9월 1일부터 진행될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장애인복지관(☎043-420-6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6일까지 '2023년 장애인식개선 작품 공모전'을 진행했다.



##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식개선 작품 공모전

### 지역주민 참여, 긍정적인 장애인관 공감·공유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호찬)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50주년 기념 장애인식개선 작품 공모전'을 3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실시했다.

장애인식개선 작품공모전은 음성군 내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그리기 대회이며, 지역 주민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중 우수작품의 경우 2023년 7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소초등학교, 금양교육도서관, 금양읍행정복지센터, 음성군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순회전시회를 진행했다.

작품공모전을 실시한 북부권 장애인 복지관은 음성, 충주, 단양, 제천 지역 총 4곳으로 우수작품은 5주간 전시됐다.

전시 기간은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소초등학교,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금양교육도서관,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금양읍행정복지센터, 8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 전시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은 장애를 표현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긍정적인 장애인관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식개선 작품공모전 담당자인 김장원 사회복지사는 "지역 주민들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스스로의 장애인관을 돌아보시며, 혹시라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면서 "모든 사람, 각자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듯이 장애인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분들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자연스럽게 바라봐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응원하기 위해 상담, 사례관리, 기능강화 지원사업,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직업적응훈련 및 취업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문화여가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운영지원사업, 주간보호센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충북발달장애인가족돌봄센터' 운영 시작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일시적 24시간 돌봄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충북발달장애인가족돌봄센터(센터장 직무대리 남지윤, 이하 충북발달센터)가 지난달 3일 충주에 위치한 '충북 발달장애인가족돌봄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충북발달장애인가족돌봄센터는 충주시 문화동에 위치하며 남성 1개소, 여성 1개소(남녀 정원 각 4명)로 운영된다.

충북도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주시지부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충북발달장애인가족돌봄센터는 충

북도에서 주관하고 충북발달센터에서 운영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시작된 '발달장애인가족돌봄서비스사업'에서는 발달장애인가족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한다.

이용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이며, 이용 기간은 사유에 따라 1회 이용 시 1~7일까지, 연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일 이용료는 15,000원, 식비

30,000원(본인 부담 15,000원, 국비 지원 15,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식비만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다.

충북발달센터에서는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 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사전등록'을 받고 있으며, 희망 시 신청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긴급상황 일 경우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충북가족돌봄센터 이용 신청은 평일 주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는 충북발달센터(☎070-5089-5864)로, 평일 야간·주말·공휴일·당일 입소시에는 충북가족돌봄센터(☎043-851-36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0일 새생명장애인복지관에서 말벗 및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 "삼계탕 드시고 힘내세요"

### 지역 내 취약계층에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행사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센터장 박용훈)는 지난 10일 새생명장애인복지관에서 말벗 및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한국동서발전(주) 음성그린에너지건설본부(본부장 전준모)의 협찬으로 자활근로

참여주민, 새생명장애인복지, 뿌리가깊은나무에 총 135인분의 삼계탕이 담백 담긴 삼계탕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무더위에 지친 음성군 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삼계탕을 제공하여 기력 및 원기회

복을 통한 건강한 여름나기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박용훈 센터장은 "무더운 여름철 기력회복에 좋은 삼계탕으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른 지역사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충주시장애인가족센터, 성취 프로젝트 '터닝포인트'

### 내달 4일부터 2개월간... 참여자와 협동·성취감 향상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최승민)가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기 성취 프로젝트인 '터닝포인트' 프로그램을 오는 9월 4일부터 10월 27일까지 2개월간 총 14회차로 실시한다.

장애인 스스로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담은 자기 성취 프로젝트 '터

닝포인트'는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매주 2회 활동하며 낮 동안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성취포상제를 통해 끈기 있는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성취감과 자신감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참여자들과 협동하며 긍정

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충주시 일대의 명소탐방과 사진찍기, 걷기와 조깅을 통한 신체운동, 쓰레기를 주우면서 환경을 개선하는 봉사활동으로 이뤄진다.

자기성취 프로젝트 터닝포인트 신청이나 문의는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충주시 봉방3길 28, ☎043-845-6533, www.cjgoodfamily.or.kr)를 통해 가능하다.

# 충북

##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

www.043w.or.kr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 '난임·다동이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

##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가정의 임신·출산·양육부담 개선 난임부부·다동이부모 등의 건의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양육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부부와 다동이 가정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난임·다동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동이(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해, 임신·출산 전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 주요내용

- ① 쌍둥이여도 세쌍둥이여도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모두 140만원 지급 중(단태아는 100만원) → 태아당 100만원 증액 지원
- ②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기간 임신 9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 쓸 수 있어(세쌍둥이 이상은 7개월 이후부터)
- ③ 다동이 임신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 15일 확대
- ④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최대 2명에서 신생아수에 맞춰 지원

게는 정액검사 등 검사에 최대 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 난임 시술비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으로 시·도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르며 일부 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다. 과도한 비용 부담과 지역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전국 어디서나 난임 시술비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없애고자 한다. 예를 들어 울산에 거주하는 37세 동갑 부부의 소득이 700만원이라면,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해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경우, 매회 시술 시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모두 내야한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시술비가 지원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 2023년 기준, 2인 가구 622.1만원

###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 냉동 시술(난자동결)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를 지원하는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난자를 냉동한 후 실제로 이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면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출산 다동이 출산가정 지원을 늘립니다

###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 단태아의 경우 100만원, 쌍둥이 이상은 세쌍둥이, 네쌍둥이여도 똑같이 140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다동이를 임신한 경우, 임신·출산 과정에서 의료비 지출이 훨씬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태아 수에 따라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금액을 늘려 쌍둥이 이상부터는 태아당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만약 네쌍둥이를 임신한다면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400만원을 받는다.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확대

현재 임신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은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다동이 임신부는 임신 9개월 이전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임신부는 평균 출산 시기(평균 32.9주 출산)를 고려하여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 다동이 출산 임신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재는 다동이를 출산한 임신부와 한명을 출산한 임신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로 같았으나, 다동이를 출산한 임신부는 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배우자가 충분한 출산 후 휴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다동이 출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분에 한정되어 기업에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원기간을 10일로 확대한다.

### ● 다동이 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도우미를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간만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도우미 지원이 가능하여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미숙아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게 세쌍둥이 이상 다동이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우선 지원기간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하고, 지원인력도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공간적인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당을 25%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임신 전 건강한 임신 계획을 지원합니다

### ● 임신 준비과정의 지원 확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난임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임신 계획이나 가임력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여 임신 준비 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24년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0만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검사에 최대 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 임신 다동이 출산가정을 생각합니다

### ● 임신·출산 및 영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다동이 임신부 특성을 고려하여 임금 삭감 없이 태아 검진 시간을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현재 임신부가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동이 임신부의 경우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해야 하고 초음파와 같은 필수 검사항목도 검진 시간이 단태아 임신부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있어 충분한 태아검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다동이 임신부가 태아검진 시간을 요청하면 4시간만 인정해 주는 등 제한되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모자보건법에서 임신부 정기 건강검진 기준을 시기별로 28주 이하라면 4주에 1회, 29~36주라면 2주에 1회, 37주 이상이라면 매주 받도록 정하고 있고, 다동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주기별 건강검진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초과 횟수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인 검진 횟수만 인정하는 사업제도 있다. 다동이 임신부는 단태아 임신에 비해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33주부터 매주 태아검진을 받을 필요성이 커지는데 현장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곤혹스러운 경우도 많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신부가 태아검진 진단을 받게 데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 사업장을 수시로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를 지원한다. 현재는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험 임신 질환은 입원 치료를 꼭 필요로 하므로 어느 가정이나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2024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현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청검사·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500만원, 미숙아는 300만~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소득기준이나 지원기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동이는 선천성 질병을 앓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선 제한은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간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2026년까지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 지역 전국으로 확대한다.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는 신생아 집중치료를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간호사)을 배정해 건강상담과 영아 발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경기남부 6개 지역에서만 시범운영 중이다. 하지만 미숙아의 경우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026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늘릴 예정이다.

## 양육 이른둥이, 다동이·다자녀가정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 출산 후 양육까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부모 외 돌봄인력 필요한 다동이 가정을 위한 정부지원이 늘어났다. 다동이·다자녀 가구는 부모 외 돌봄인력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돌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원 없이 도우미를 고용한 가정은 두 달 만에 1,2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다동이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다동이 가정의 어려움은 이뿐만 아니다. 영아 두세 명을 동시에 돌보는 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돌보미선생님들이 다동이 가구에 배치되는 걸 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매칭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매칭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영아를 돌보는 돌보미선생님들에게 추가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면 양육 공백이 인정되지 않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 1 다동이 출산가정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15일'

구분	지금	앞으로
단태아	10일	10일
다동이(쌍둥이 이상)	10일	15일
중소기업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고용보험	제휴기간 5일	10일

### 2 신생아수에 따라 산후조리 지원인력·기간도 함께 늘어나

구분	지금	앞으로
인원수	2명	태아수에 맞춰 지원
계정기간	15~25일	15~40일
이용기한(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180일 이내

신생아 3명(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도우미 지원기간 최대 40일로 확대 (2024년 1월부터)

\*이용자 외(태아) 따라 도우미를 2명만 고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인력의 수당을 약 25% 인상해 지원 (※ 서비스 확대 내용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음)

### 1 임신 준비 중인 부부인 경우, '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2024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25년 전국 확대 추진)

- 여성: 검진비 10만 원,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 지원
- 남성: 검진비 5만 원, 정액 검사 지원

### 2 전국 어디서나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추진

체외수정(산란·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 지원

### 3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난자를 이후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지원

### 1 태아 수에 따라 '태아당 100만 원'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2023년 하반기부터)

- 임신부·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구분	지금	앞으로
단태아	100만 원	태아·쌍둥이·세쌍둥이 이상*
쌍둥이	140만 원	3개월 이내/9개월 이후
세쌍둥이	140만 원	12주 이내/8개월 이후
네쌍둥이	140만 원	세쌍둥이 이상*
다쌍둥이	140만 원	12주 이내/7개월 이후*

(이후 100만 원씩 증액)

### 2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9개월~8개월 이후' 확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 3 다동이 임신부 등 고위험 임신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2024년부터)

구분	지금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매지	없음

\*다동이 임신,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신부

### 4 태아 검진 등 임신부가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때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행정지도

(수시)

### 1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선천성 난청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의료비 지원기간 8개월 더 늘려

(2024년부터)

구분	지금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매지	없음
소득기준 폐지	매지	없음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받은 경우	매지	없음
앞으로	2년 이내	없음

### 2 미숙아를 전문인력(간호사)이 지속 관리해주는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구분	지금	앞으로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남부 6개 지역 시범사업 중	매지	없음
앞으로	2026년 전국 확대	없음

### 3 아이돌봄서비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해 대폭 지원

구분	지금	앞으로
다자녀 가구	매지	없음
영아기 다동이 가정	매지	없음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인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	매지	없음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적용	매지	없음
신생아 지원 돌보미(영아돌보미) 수당 인상 (2024년 1월)	매지	없음
아이돌보미 지원	매지	없음
앞으로	2024년 1월	없음

복지광장



윤지연

충청북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장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는 "혼자는 외로워, 둘째 낳아야지?"라는 주위의 걱정이었다.

우리가족은 둘째를 낳을 계획이 없다. 딸아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다. 아이의 돌봄을 도와줄 것도 아닌데 낳으라고 쉽게 말하는 주변 상황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10년을 지내왔다. 그런데, 요즘 "둘째를 낳아볼까?"라

는 생각을 했다.

최근, 충청북도에서 1인당 1,000만원을 6년 동안 분할 지급한다는 출산육아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2023년도 출생아의 경우 올해 300만원, 1세 100만원, 2세~4세 각 200만원씩 매년 지원하며, 2024년도 출생아부터는 1세 100만원, 2세~5세 각 200만원, 6세 100만원을 매년 지원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물론, 1,000만원 때문에 아이를 낳겠다는 것은 아니다. 딸아이를 키워보며, 아이는 너무 이쁘고, 우리 가족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줬다. 이 행복을 또 느끼고 싶지만, 둘째를 낳으면 돌봄을 온전히 내가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돌봄을 위한 환경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아이돌봄서비스'이다.

아이돌봄 지원법(법률 제 19129호)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서비스 종류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로 4가지로 구분하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돌봄서비스는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이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가사활동을 제외한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며,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

'시간제 서비스'는 내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맞벌이 가정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대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서비스이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이 있다.

또한, 아이를 돌보러 집으로 직접 오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은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과정을 거쳐, 내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도 심어준다.

충청북도에서는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를 1,520가구가 이용 중에 있고, 아이돌보미는 713명이 활동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가구 중 45%는 맞벌이가정,

23%는 다자녀가정이 이용하고 있다.

각 가정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지지만, 지원의 폭이 넓은 편이다. 이용요금은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는 1시간 기준 11,080원이다.

이용절차는 '가~다'형은 읍·면·동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정부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라'형은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가구유형을 '가나다라'형으로 나누어, '가~다'형은 기준 중위소득이 150%이하인 가구로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고, '라'형은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로 정부 지원금은 따로 없다.

정부지원금이 없어도 정부에서 지원 운영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신뢰도가 높아 많은 가정이 이용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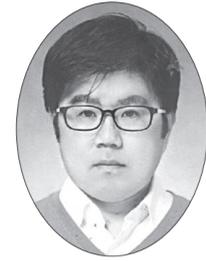
돌봄 때문에 아이 낳기를 고민하지 않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돌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니, 나도 가족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야겠다.

"둘째를 낳아볼까?"

건강칼럼

복부 불편의 진실 -과민성 장증후군을 알아보다



변영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4내과장

단 관리와 스트레스나 피로, 음주 등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 식단 관리에 있어서 복용 시 증상을 유발시키는 음식을 피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음식들이 고포드맵(FODMAP)식이요법 이런 음식들을 과량 섭취할 경우 이런 물질들이 흡수가 되지 않고,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수소나 메탄 등의 가스를 많이 만들 때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 설사나 무른 변을 유발하게 된다. 설사형 환자의 경우 가급적 저 포드맵 식사를 유지하거나 고 포드맵 식단을 조리 방법 등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운동이나 적절한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장-뇌 축을 통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장점막 투과성에 영향을 주어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식사 조절이나 운동, 휴식을 통해서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때는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약물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장 운동을 조절하는 진경제는 복통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변비가 유발 될 수 있어 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며, 하제의 경우 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극성 하제의 사용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장기간 사용시 대장 무력형 변비를 유발 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로 알려져 있는 생균제의 경우 장내 미생물 구성의 정상화에 도움을 주어 증상 호전 및 원인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비효율성 경우용 항균제의 경우 소장의 세균 과증식을 호전시킬 수 있어 일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항우울제도 통증 억제나 전반적인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어 변비형 환자에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사용하거나 설사형 환자에서 삼환계 항우울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면 요법이나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과민성 장증후군은 스트레스와 연관된 만성질환으로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등의 문제나 편두통, 섬유근육통 등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앞서 언급한 질환에 대해 복용하고 있는 약물로 인해 변비 유발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등 다른 진료 분야와의 협의의 진료가 요구되기도 한다.

\* 청주의료원 의료비 지원서비스 사업 : 긴급복지지원제도(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 의료복지지원제도(에코프로, SK텔레콤 한음) 등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복통과 설사 증상이 나타나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과민성 장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다. 과민성 장증후군이란 위나 장에 기질적 질환 없이 만성적으로 복통, 변비, 설사 등의 배변습관의 이상과 복부 불편감이 지속되는 기능적인 질환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9~25%의 성인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해마다 환자수가 늘어나는 질환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흔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 장의 과민성, 장내 염증, 음식 알레르기 등 다양한 원인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며 이와 연관된 장과 연계된 뇌의 기능변화(장-뇌 축)도 한 가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모두 과민성 장증후군은 아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상은 복통과 배변습관의 변화이며 복통은 배변 후 복통이 경감되는 양상을 보인다. 복통을 동반한 설사나 변비 등의 배변양상의 변화가 일정 기간(3달 동안 한 달에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의심할 수 있다.

이런 증상에 따라 설사형, 변비형, 혼합형 혹은 교대형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증상에 더하여 직장출혈, 체중감소, 빈혈, 고령, 대장의 악성 종양이나 염증성 질환 등의 가족력이 있으면 다른 질환의 동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이나 복부 CT 등의 검사가 선행 되어야 한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치료로는 식

현장의 목소리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김박사와 독수리 5형제'



최하나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팀장

스의 필요성과 보조기기의 중요성 또한 비중이 커졌다.

그렇다면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는 어떤 곳일까?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보조기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원스톱으로 개인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다.

개인 특성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 및 평가, 무상 대여, 개조 및 제작, 이동보조기기센터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는 비상근 센터장과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 모두 잘 훈련된 독수리 5형제만큼 강인하고, 그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용기가 있다.

독수리 5형제를 총괄하고, 직접 현장까지 함께하는 베테랑 센터장은 박사 역할, 그리하여 김박사와 독수리 5형제라고 부른다.

센터 개소 10주년이지만 아직도 보조기기 판매 업체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처럼 보조기기 관련 오해와 편견에 대한 진실을 몇 가지 밝히고자 한다.

첫째, '보정기 무료도 드려요' 라는 광고를 한 번쯤은 본적이 있을 것이다. 과연 보정기는 무료일까? 청각장애인 중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면 최대 지원 금액 131만원의 10%는 자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건강보험 납부자인데 무료라면

판매 업체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일 수 있으니 고객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품목 고시 제품 중 판매해야 하지만, 업체와 청각장애인이 합의하고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후 고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영수증만 발급하는 예도 있는데 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구매 가격 전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절대 하서는 안 된다.

둘째, 전동침대는 등록 장애인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답은 아니다. 우선,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통해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전동침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 등록과 별도로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나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전동침대를 대여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30대 비장애인인데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어 한 달만 수동휠체어가 필요한데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에서 대여가 가능할까? 정답은 안된다. 전국 보조기기센터 이용 대상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 외 대상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여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가 필요하다.

1년에 약 800명에게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독수리 5형제가 1주일에 3번씩 충청북도 전 지역을 바쁘게

출장 다녀야 한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뿌듯함, 그들로부터 받는 따스한 마음은 이 일을 결코 멈출 수 없게 했다.

활동지원사가 퇴근할 때 전등을 끄고 가면, 독거 중인 외산 장애인 전등을 켜지 못해 스마트폰 불빛에만 의존해 어둠 속에서 밤을 보내야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전등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게 개조 지원했다.

또, 직장에는 상사나 동료들의 부름에 즉시 응하기가 어려워 불빛으로 호출이 표시되어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호 대체 장치를 지원했다.

이처럼 보조기기라는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주위 사람들의 삶의 질까지도 향상하는 영향을 준다.

지역사회 어디에서든 각자의 환경에 따라 적절한 보조공학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자신의 잔존 기능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환경 변화를 통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중 보건복지부에서는 18년째 동결되었던 전동 보조기기(9품목) 지원 급여기준액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한다.

급여 품목 83개 중 31개 품목이 15년 이상 제자리라고 하는데 현실과 이상에 괴리가 있다. 나아가 최중증 장애인, 호흡기 장애인, 출산 관련 보조기기 등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 달의 법률상식

동업 재산 유용 시 횡령죄로 고소하는 방안



신덕 변호사  
법무법인 YK

Q 친구와 둘이서 동업으로 가게를 운영했는데 친구가 동업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자신의 빚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위 질의사안의 경우,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업자 중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했다면 이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에 의하면, 동업자가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처분하거나 동업재산 매각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횡령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범위는 그 횡령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 판례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甲 주식회사가 서로 금전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甲 회사 명의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乙 주식회사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양도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는데도, 피고인이 乙 회사에게서 甲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일부 계약금을 보관 중 甲 회사 대표이사인 丙 손익 없이 그 대부분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회사와 동업관계에 있더라도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친구들끼리 혹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동업의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협의나 합의 없이 어느 일방의 동업 재산 처분 등의 배신적 행위가 뒤따를 경우 더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기 전에 수사기관에 횡령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복지정보 제공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간활동서비스 참여 모집]

- 신청대상: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 장애인
- 신청기간: 상시
- 지원내용: 운동, 문화생활, 예술활동, 직업체험 등 낮시간 맞춤 프로그램 제공
- 문의 및 신청: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043-716-2164~2169)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청소년발달장애인과후활동서비스 참여자 모집]

- 신청대상: 일반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 신청기간: 상시
- 지원내용: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문의 및 신청: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043-716-2164~2169)

[새생명지원센터, 2023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 사업 안내]

- 신청대상: 충청북도 거주 만 24세 이하 한부모, 만25세 이상 미혼모·부(혼인기록이 없고 사실상 관계가 아닌자)
-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 지원내용: 양육용품 및 병원비 지원(연 100만원 이내),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지원, 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자녀양육(돌봄) 연계 등, 주거·교육·취업지원 등
- 문의 및 신청: 새생명지원센터(1577-3053)

[청주시가족센터, 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기능 회복지원사업 "우리 가족이 하나되는 순간: 가족의 온도 36.5"]

- 신청대상: 원가정 기능회복을 희망하는 아동·청소년 가정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 및 가족문화체험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 지원기간: 2023년 1월 ~ 12월  
■ 신청방법: 청주시가족센터(043-295-1817)

[청주시가족센터, 함께하면 아름다운 "행복어울림"]

- 신청대상: 한국 생활에 복합적 어려움이 있으며,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다문화가족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손)자녀 학습멘토링서비스, 가족문화체험, 상담 및 정보제공, 주거 및 법률 자문 연계 등
- 지원기간: 등록시기부터 1년 이내(최대 1년 연장 가능)
- 신청방법: 청주시가족센터(043-295-1817)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3년도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3월 ~ 12월 (연중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
-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신청 인원은 회차당 20명 이내로 가능함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I) 이론 교육, 유도체험관 및 주택체험관 견학
- 신청방법: 전화 접수(T.234-0840~2)
-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문의: 043-234-0840
- 참고: <https://www.043w.or.kr/>

[월정어린이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 상시 공모]

- 지원대상: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만 15세 이하 초·중학생 및 영유아
- 지원내용: 지원 아동의 질병 치료에 요구되는 일체의 의료 비용(수술비, 진료비, 약제비, 주사비 등) \*제외: 치과치료, 발달재활치료(언어치료, 놀이치료, 인지치료 등)
- 지원금액: 개인 최대 200만원
- 신청자격: 선정 아동의 사례 관리가 가능한 아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5440421@hanmail.net)
-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정발표: 접수 후 4주 이내 선정 여부 발표
- 문의: 02-437-2219

[사랑의열매, 제6회 학술연구지원 공모 안내]

- 공모주제: 나눔문화 활성화 관련 기부, 나눔, 비영리 분야 자유 주제
- 공모대상: 박사학위 소지자(전문연구자 부문), 석사학위 과정생 이상(일반연구자 부문)
- 지원내용: 연구비 지원(전문연구자 부문 1천만원, 일반연구자 부문 5백만원 / 연구기간 2024. 1. 1. ~ 11. 30.)
- 신청기간: 2023. 7. 1.(토)~10. 31.(화)
- 결과발표: 2023. 12. 6. 개별 안내
-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 후 이메일(research@chest.or.kr) 온라인 제출
- 문의: 02-6262-3196 / yroh@chest.or.kr
- 참고: [blog.naver.com/nanum-research](http://blog.naver.com/nanum-research)

[KBS강태원복지재단, 마을단위NPO 협약 기관 모집]

- 사업소개: 전국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협약혜택: 위기가정 지원금(1가정당 최대 500만 원 지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 사례관리 지원금(사례관리비 지원(위기가정 지원금의 10%), 출장비, 물품구입비, 회의비, 다과 및 식사비 등)
- 신청자격: 전국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2023년 5월부터 적용), 위기가정 사례관리 및 지원금 집행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 \*지원금 집행: 해당 기관(단체) 명의의 지원금 전용 통장 개설하여 지원금을 집행 및 관리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www.kbsktw.com) 내 온라인 신청
- 문의: 02-781-2951

자원 봉사자 모집

▶ **어르신 학습지도 봉사**  
관리센터: 청주가경노인복지관  
활동기간: 9.1 ~ 9.30  
전화번호: 043-236-0111

▶ **재가노인 식사배달 봉사**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9.1 ~ 9.30  
전화번호: 043-266-4761

▶ **중학생 학습지도 봉사**  
관리센터: 서원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9.1 ~ 9.30  
전화번호: 043-233-7578

▶ **생활환경개선, 어르신돌봄, 정서지원 봉사**  
관리센터: 청주노인주간보호센터  
활동기간: 9.1 ~ 9.30  
전화번호: 043-285-3131

▶ **화단정리 봉사**  
관리센터: 진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  
활동기간: 9.1 ~ 9.30  
전화번호: 043-533-1177

▶ **어르신 송영 및 프로그램 활동보조**  
관리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충주돌봄  
활동기간: 9.1 ~ 9.30  
전화번호: 043-855-2890

▶ **기관 내 문구 전자부품 조립 봉사**  
관리센터: 충북광화원재단원  
활동기간: 9.1 ~ 9.30  
전화번호: 043-253-7598

▶ **조리지원 봉사**  
관리센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9.1 ~ 9.30  
전화번호: 043-835-4288

▶ **원예프로그램 보조 봉사**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9.1 ~ 9.30  
전화번호: 043-288-0102

▶ **식당 배식 봉사**  
관리센터: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9.1 ~ 9.30  
전화번호: 043-275-7411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스마일봉사단, 공연봉사 및 환경정화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스마일봉사단(회장 박종득)은 지난달 22일 청주시에 위치한 주간보호센터에서 공연 봉사활동을 진행 후, 무심천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플로깅에도 앞장섰다.

박종득 회장은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싶다"며 "봉사는 주는 만큼 얻는 것이 많은 활동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잃고 있던 활력과 나눔의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마일봉사단은 2014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다방면으로 봉사활동을 진행 해오고 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과 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 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전국 최초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모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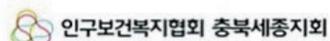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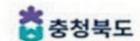
-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여성
- 공고일 이후 도내 시술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난자 냉동을 시술한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1.5 이하
- 중위소득 180% 이하 \* 건강보험료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132,975원

♥ 지원내용: 난자 냉동 시술 비용(검사비, 주사료 등)

♥ 지원금액: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1회

♥ 문의전화

- 충청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92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인구사업과 043-270-5936



복/지/만/평

도전

이창신 www.bokmani.com

할 수 없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해야 한다면 일단 해보자!

